

민주, 檢 정치탄압 총력 대응 ‘文 수사 대책위’ 가동

친명·친문 참여 특위 출범... 첫 회의 열고 대응 방안 논의 ‘檢 개혁 법안 연계 검토... 수사관계자 책임 끝까지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당내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계가 9일 대책위를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양측은 민주당 산·구주류로서 지난 총선 공천과정 등에서 적잖은 갈등을 노출했지만, 검찰의 칼끝이 두 진영의 정점을 향하는 상황과 맞물려 공조를 강화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前)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대책위에는 이 대표 및 측근들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김동아·박균택 의원과 박지혜·한민수 의원 등 친명계는 물론, 대표적 전문 인사인 윤건영 의원과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출신인 황희 의원, 정무수석과 정부비서관을 각각 지낸 한병도·김한규 의원이 포함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 김영진 위원장은 “정치탄압에 당이 하나가 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고, 황희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탈탈 털어 온 가족이 썩대밭이 되지 않았다”라며 “세계(비판)를 하겠다. 윤석열 정권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빛대 검찰을 공격하는 발언들도 쏟아졌다.

김영배 의원은 “아무리 봐도 ‘논두렁 시계’ 사건이 연상된다”며 “검찰은 본 사건과 완전히 별개인 사건도 (언론에) 계속 흘리고 있다. ‘야방곡 낭’으로 노 전 대통령을 공격한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열한 언론플레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면서 항의방문을 포함해 강력한 대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오늘 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괴롭히기 수사를 한 검찰 관계자의 경우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 팀과도 연계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전날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나 검찰 수사에 대해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냈다는 점에서, 당내 ‘양대 세력’의 공동전선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 가족에 대한 현 정부의 작태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여론을 잘 듣지 않고 혼자서만 결정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언급,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측의 연대가 검찰수사 공동 대응 차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지는 의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여권에선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을 두고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협의체 구성 뜻 모은 여야 “의료계 동참 공동 노력”

“정부, 진정성 있는 제안 필요”... 연금·기후 등 특위 구성 논의도

여야는 9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여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 참여 여부”라며 “(의정과 야당이)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

고 요청했고, 정부·여당이 현재 그렇게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 활발히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의정과 야당도 결국 의료계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같이 기회가 있을 때 의료계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료계와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며 “저희도 당 차원에서 여러 의원이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회동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비롯해 기후·인구·정치개혁·윤리·지방소멸위기대응·AI(인공지능)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각당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협의할 예정이라고 두 원내대표가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김건희·채상병 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

김 여사 주가조작 등 8가지 의혹 포함... 국힘, 표결 불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검 수사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 특검법 범위에 이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흐름이 형성되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유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해서 다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추석 법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른바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으로 불리는 이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선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국비 확보 숨통 트이나

안도걸 의원, 예산소위 위원 선임... 내년 예산안 조정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사진) 국회의원이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광주·전남 국비 확보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특히 결산소위에 선임된 위원은 관례적으로 예산조정소위(총 15명)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해 확정하는 예산조정소위 위원 활동도 예상된다.

9일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큰 임무를 맡게 되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정책통·예산통으로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나라재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예결위 활동을 통해 광주의 현안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5·18진상조사위원회 권고



사항을 이행할 기관으로 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관 유치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안 의원은 동남을 지역 예산안 뿐 아니라 광주시 전체 국비 예산안 증액을 위해 TF를 꾸려 정부 부처와 수시 소통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